

한중일 금융시장 감시체계 구축

亞 금융시장 안정 위해 새 조직 창설 요미우리 보도...아세안국 참여 요청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금융당국이 아시아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감시체제와 정보공시 등에 관계 협의를 새로운 조직을 긴급 창설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의 참가국들로 구성된

는 금융안정화포럼(FSF)의 아시아 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세안(동남 아국가연합) 회원국에도 참가를 요청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중·일 3국은 이른바 11월중 도쿄(東京)에서 첫 회의를 갖고 세계적 인 금융위기가 아시아 경제에 주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

책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아시아안 FSF'로 불리려 될 '거시경제·금융안정화워 크스'는 일본측 요청에 중국과 한국이 응해 실현되게 됐으며 3국의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금융감독당국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아시아안 FSF는 지난 1999년 설립된 FSF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감독과 정보공개의 투명성 등에 대해 적극적인 제언 등을 하게 된다.

특히 아시아 각국에서 사업을 전개

하고 있는 주요 금융기관에 대해 재무내용의 건전성과 응자의 실태, 투자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내부 관리체제의 감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각국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증시 폭락과 실물경제 타격 등으로 이전의 고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 한·중·일 3국이 G7 등의 조직과는 별도로 아시아의 독자적인 금융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 조직을 발족하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中 성장 둔화 세계경제 타격 가시화 한국·독일·일본 등 對中 수출 감소

중국의 지난 3·4분기 경제성장률이 한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이 둔화하면서 전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기 시작하는 등 올림픽 이후 중국 성장둔화의 여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증가하는 수요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상승하고 있는 전세계 경제의 버팀목이 돼줄 것이라는 희망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주변국의 대(對)중국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지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9.0%로 집계됐다. 이는 1·4분기 10.6%, 2·4분기 10.1%에 비해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올해 연간 전체로는 중국의 성장률이 지난 2002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이로 인해 독일 기계제조업부터 일본 건설장비와 원자재 생산업체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중국의 수혜

를 입었던 전 세계 각국의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올 들어 8월까지 SK에너지의 대중국 석유제품 수출량은 작년 동기대비 35%나 감소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수요가 증가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독일은 올 들어 7월까지 중국에 대한 기계류와 부품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20% 감소했고, 이 수출의 증가율은 내년엔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생산량의 95%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독일 직물 기계 제조업은 올 7월까지 주문이 작년보다 42%나 급감했다.

일본 기계제조업은 그동안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주문이 미국과 유럽 시장의 둔화를 상쇄해줬지만, 지난 9월에는 중국의 주문이 24.6%나 줄었다.

일본 PVC 제조업체인 토소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9월부터 생산량을 15% 줄였고 일본 최대의 기계업체인 고마쓰는 6월이래 주가가 70%나 폭락했다.



인도 달 탐사위성 발사 성공
6시22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하리코타의 사티시 다한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인도의 달 탐사선 발사는 일본,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3번째다. '찬드리아'는 산스크리트어로 '달 탐사선'을 의미한다. /연합뉴스

인도 북동부서 폭탄 테러 최소 11명 숨져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주(州)의 주도 임팔에서 21일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한 11명이 숨졌다고 경찰이 밝혔다.

라데사나 경찰서장은 경찰 훈련소 부근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장착된 폭탄이 터진 것으로 보인다고

병원에 후송된 부상자 중 일부는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다.

상글라데시, 부탄, 중국, 미얀마에 둘러싸여 있는 이 지역에는 수십 개의 분리주의 단체들이 난립해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1만명 이상이 폭력 사태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 /연합뉴스

美 경제 이번엔 '언더 워터' 공포

(대출금 밀도는 집값)

작년 2배 1,200만명 원더 워터 상향 소비 위축 - 경기침체 악순환 불러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 여파로 집값이 주택을 담보로 해 빌린 돈을 밀도는 '언더워터(Under Water)'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이코노미닷컴의 마크 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2일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주택소유자 6명 가운데 1명꼴인 1천200만명이 언더워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2006년 말 300만명, 2007년 말 660만명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언더워터는 융자은행의 모기지 연체와 주택담보 증권 및 주택금융 과잉을 초래해 부동산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은행의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미 미국의 가계소비는 주택소유자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면서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특히 은행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유동성을 공급한 연방 정부의 7천억달러 구제금융보다 부동산 위기로 인한 납세 부담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위기를 맞아 은행 구제에 초점을 맞추는 사이 부실 모기지로 고통받는 가계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면서 실물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화당의 후보 역시 주택소유자에 대한 구제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각론은 물론이고 언더워터 해결 방안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美기업 실적 악화에 감원 확산

아후, 연말까지 인원 10% 감축 듀폰, 순이익 작년비 30% 줄어

신용위기와 경기 악화로 고전하는 미국 기업들에 감원이 확산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3·4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내놓은 데 이어 앞으로도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고 결국 감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후는 21일 3·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연말까지 10%에 달하는 인력을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아후 직원이 1만4천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천400명 가량의 감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후의 감원은 3분기 순이익이 5천430만달러(주당 4센트)로 작년 동기의 1억5천130만달러(주당 11센트)에 비해 64%나 급감하는 등 실적이 악화됨에 따른 것이다.

장비업체 캐터필러도 3분기 순이익이 8억6천800만달러(주당 1.39달러)로 전년보다 6% 감소했다고 발

표하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짐 오웬스 최고경영자(CEO)는 지금까지는 내년 경제전망이 매우 불확실하다면서 내년도 매출 전망이 올해 수준에서 정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후나 캐터필러와 마찬가지로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부진한 실적과 함께 향후 전망도 어둡게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 집계에 따르면 스탠더드 앤드 푸어(S&P) 500 소속 기업 중 이번 분기 실적을 발표한 107개의 평균 이익은 27% 감소해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화학업체 듀폰의 3분기 순이익은 3억6천700만달러(주당 40센트)로 작년 동기보다 30% 감소했다. 듀폰은 또 어려운 경영여건을 반영해 올해 특별 할부를 제외한 순이익 전망치도 종전의 주당 3.45~3.55달러에서 3.25~3.30달러로 낮췄다.

이 같은 기업들의 실적 부진은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권의 감원 한파를 일반 기업으로도 확산시키고 있다.

음식 배 부를때까지 급하게 먹으면 비만 될 확률 3배

日 오사카 대학 연구팀

음식을 배가 부를 때까지 급하게 먹는 사람은 천천히 적당량을 먹는 사람보다 비만에 빠질 확률이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했다.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팀은 22일 자 브라티지 메디컬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30~69세 연령층의 일본인 남녀 3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식습관의 차이가 비만에 늘어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1천222명의 남성과 2천165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비만의 지표인 체질량지수(BMI)를 면밀히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과잉 섭취와 여성의 절반 가량은 배가 부를 때까지는 먹는다고 답했고 남성의 절반, 여성의 약 3분의 1이 급하게 먹는다

고 답했다. 연구팀은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남녀 그룹은 적당량을 먹는 남녀 그룹에 비해 비만에 걸릴 확률이 2배이고 급하게 많이 먹은 남녀 그룹의 경우는 그 확률이 3배로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호주의 영양학자 엘리자베스 데니-윌슨과 카렌 캄벨은 BMJ에 실린 논평에서 급하게 먹는 식습관은 인간의 유전적인 생존 메커니즘에 속한다고 말했다.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숙진
공인중개사 김갑순

(주)옥션코리아

신집상담 ☎062)222-8446
H.010-3666-8446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건대 입원장 앞)

▶근린시설 (근린주택/상가)					▶주택					▶아파트							
지역	소재지	대/전(㎡)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대/전(㎡)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평형	층	면적(㎡)	감평가	최저가	
북구	오지동	503/1944	11억9800원	1억9800원	북구	계동	314/294	1억8740원	19170원	북구	남동	2룸	11층	116	292000원	197000원	
	운남동	484/324	12억9000원	899000원		화동	221/132	194000원	78910원		남동	1룸	7	78	72000원	53400원	
	충동	456/738	892000원	499000원		산수동	145/138	84110원	56800원		북동	2룸	11층	106	191000원	112000원	
	우신동	816/1812	299000원	199000원		북구	남동	126/138	91840원	51460원		충동	1룸	8	80	80000원	65100원
	우신동	302/239	299000원	199000원		남구	북동	126/138	91840원	51460원		충동	1룸	112	148000원	192000원	
	우신동	1156/3294	194000원	199000원		남구	북동	126/138	91840원	51460원		충동	1룸	108	192000원	113000원	
	우신동	705/2972	222000원	101억1800원		남구	충동	146/103	68310원	46520원		충동	1룸	106	191500원	85000원	
평산구	월곡동	388/412	594000원	419700원		남구	충동	146/103	68310원	46520원		충동	1룸	78	75000원	52500원	
	우신동	823/640	1040000원	794000원		남구	충동	146/103	68310원	46520원		충동	1룸	85	48000원	32300원	
	우신동	510/375	14199000원	14199000원		남구	충동	146/103	68310원	46520원		충동	1룸	78	65000원	45500원	
서구	금호동	346/775	7992000원	6911200원		남구	충동	146/103	68310원	46520원		충동	1룸	106	80000원	96000원	
	금호동	206/576	3998000원	2998000원		남구	충동	146/103	68310원	46520원		충동	1룸	198	198000원	1493000원	

▶다가구 (월동)					▶토지					▶공장				
지역	소재지	대/전(㎡)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면적(㎡)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대/전(㎡)	감평가	최저가
서구	월곡동	180/234	2945000원	1975000원	남구	월곡동	7547	69700원	481000원	남구	월곡동	5173/2278	2992000원	1895500원
북구	계동	174/613	3910000원	2917000원	남구	월곡동	2535	46200원	32200원	남구	월곡동	3395/2100	1919000원	1093000원
북구	계동	119/612	1915000원	640000원	남구	월곡동	3499	45490원	32010원	남구	월곡동	3395/2100	1919000원	1093000원
북구	계동	119/612	1915000원	640000원	남구	월곡동	4650	41000원	28600원	남구	월곡동	3395/2100	1919000원	1093000원
북구	계동	119/612	1915000원	640000원	남구	월곡동	3499	45490원	32010원	남구	월곡동	3395/2100	1919000원	1093000원
북구	계동	119/612	1915000원	640000원	남구	월곡동	3499	45490원	32010원	남구	월곡동	3395/2100	1919000원	1093000원
북구	계동	119/612	1915000원	640000원	남구	월곡동	3499	45490원	32010원	남구	월곡동	3395/2100	1919000원	1093000원
북구	계동	119/612	1915000원	640000원	남구	월곡동	3499	45490원	32010원	남구	월곡동	3395/2100	1919000원	1093000원

▶숙박시설 (모텔)					▶토지					▶공장				
지역	소재지	대/전(㎡)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면적(㎡)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대/전(㎡)	감평가	최저가
북구	남동	2616/1579	11590000원	9598000원	남구	월곡동	7547	69700원	481000원	남구	월곡동	5173/2278	2992000원	1895500원
북구	남동	2616/1579	11590000원	9598000원	남구	월곡동	2535	46200원	32200원	남구	월곡동	3395/2100	1919000원	1093000원
북구	남동	2616/1579	11590000원	9598000원	남구	월곡동	3499	45490원	32010원	남구	월곡동	3395/2100	1919000원	1093000원
북구	남동	2616/1579	11590000원	9598000원	남구	월곡동	3499	45490원	32010원	남구	월곡동	3395/2100	1919000원	1093000원
북구	남동	2616/1579	11590000원	9598000원	남구	월곡동	3499	45490원	32010원	남구	월곡동	3395/2100	1919000원	1093000원
북구	남동	2616/1579	11590000원	9598000원	남구	월곡동	3499	45490원	32010원	남구	월곡동	3395/2100	1919000원	1093000원
북구	남동	2616/1579	11590000원	9598000원	남구	월곡동	3499	45490원	32010원	남구	월곡동	3395/2100	1919000원	1093000원
북구	남동	2616/1579	11590000원	9598000원	남구	월곡동	3499	45490원	32010원	남구	월곡동	3395/2100	1919000원	1093000원

▶오아시스					▶농가권면시설					▶기타				
지역	소재지	대/전(㎡)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대/전(㎡)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대/전(㎡)	감평가	최저가
북구	민동	41	42000원	298000원	북구	월곡동	808/323	40000원	143000원	북구	월곡동	5173/2278	2992000원	1895500원
북구	민동	156.7	9930000원	29510000원	북구	월곡동	2162/712	19100000원	6200000원	북구	월곡동	3395/2100	1919000원	1093000원
북구	민동	30.4	57000원	399000원	북구	월곡동	1679/394	505000원	2260000원	북구	월곡동	3395/2100	1919000원	1093000원
북구	민동	40.5	70000원	251000원	북구	월곡동	2800/771	19100000원	7720000원	북구	월곡동	3395/2100	1919000원	1093000원
북구	민동	38.2	72000원	404000원	북구	월곡동	2800/771	19100000원	7720000원	북구	월곡동	3395/2100	1919000원	1093000원
북구	민동	76	510000원	2860000원	북구	월곡동	2800/771	19100000원	7720000원	북구	월곡동	3395/2100	1919000원	1093000원

지역	소재지	대/전(㎡)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민동	41	42000원	298000원	오아시스
북구	민동	156.7	9930000원	29510000원	오아시스
북구	민동	30.4	57000원	399000원	오아시스
북구	민동	40.5	70000원	251000원	오아시스
북구	민동	38.2	72000원	404000원	오아시스
북구	민동	76	510000원	2860000원	오아시스

매일 훈련수당 11만원 지급! (식비 6만원, 교통비 5만원)

국비 교육생 모집!!

* 교육생에 따라 계약일이 변경되며, 훈련비 일부는 차감부담

계좌제 전문 훈련기관 호남직업전문학교!

* 보통부평기 20년 연속 우수기관(A등급) 선정!

훈련직종	교육 내용	취득자격	기간
금형 CAD/C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운용(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Auto CAD(2D, 3D) Inventor, CATIA, UG 기계설계 3차원설계 컴퓨터응용기술(기계) 프리스피닝기술 기계설계산업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Auto CAD 기술자격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컴퓨터응용기술산업기사 프리스피닝기능사 기계설계산업기사 	08.11.10 ~ 09.3.18 (4개월)
도배기능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배이론 및 시공 장판 초배, 징배 색채이론 재단 및 마감 	도배기능사	08.11.10 ~ 09.2.13 (3개월)
직업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상담 노동안계법 직업상담수행론 	직업상담사 1,2급	08.11.03 ~ 09.2.27 (4개월)
제과·제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과이론, 실기 제빵이론, 실기 케이크, 빵, 케이크 출배, 베이킹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08.11.03 ~ 09.2.6 (3개월)

교육생예택

- 매일 훈련수당 11만원 지급!!(식비 6만원, 교통비 5만원)
- 훈련비 80% 국비지원
- 수료후 취업알선
- 통학버스 무료 운행
- 각종 장학금혜택
- 1인 3개이상 자격취득
- 병역특례업체 알선

제출서류

신분증 사본(앞, 뒷면), 증명사진 3매, 통장사본(우체국, 신한·제일·우리은행), 계좌발급신청(고용지원센터에서 오전 9:30, 오후 1:30 발급, ☎609-8500)

지원자격

만 15세이상 ~ 65세 미만 남녀 일반실업자, 주부, 야간대학생, 방통대생, 대학졸업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활훈련대상자

(재)호남직업전문학교 ☎ 062-605-8008, 2, 4

http://honam.or.kr 위치 : 계림초교 4거리